

작업노트

작업의 시작은 묻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질문의 시작은 이해하고 싶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 같은 거창한 주제들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질문도 나로부터 비롯된다.

온전히 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

본다는 것, 대상을 인식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묻는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물위에 바르게 선을 그어 보겠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일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쉽게 정의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진실의 여지 때문은 아닐까?

젖은 장지 안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변형되어지는 형상들은 알 수 없는 삶과 닮았다.

그래서 그림에게 묻는다.

젖은 장지 안에서 경계가 분명한 것들 위로

작업의 의도와 그림의 무의도성을 통해 예기치 않은 대화로 들어선다.

안과 밖이 섞이면서 틀이 깨어지고 바깥과 안의 경계 또한 불분명해진다.

엄격한 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색들은 서로 섞이며 결국 예상치 못한 형상들로 드러난다.

그림 안에서 작가가 책임 질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그림이 나타낸다.

묻고 답하는 사이 틈이 생기고 그림의 세계와 현실세계와의 동일화가 시작된다.

마지막에 드러난 형상은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 틈 사이에서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그림이 답한다.

Artist Note

The beginning of work lies in asking and waiting for answers.

While my questions may begin with grand themes like exploring the world and human nature I seek to understand, ultimately, these questions stem from within myself.

A question about whether there's anything I can be absolutely certain of knowing.
I question again about the act of seeing, recognizing objects, and making judgments.

Is it foolish to believe I can draw clear divisions, like trying to draw straight lines on water?

Is my hesitation to make simple definitions of 'this' or 'that' due to countless truths that exist between 'this' and 'that'?

The unpredictably transforming shapes within wet mulberry paper resemble the unknowable nature of life.

So I ask the painting.

Through the clearly defined boundaries in wet mulberry paper, I enter into unexpected dialogues through the intention of the work and the unintentionality of the painting.

As inside and outside mix, frameworks break down, and the boundaries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become unclear.

Colors that transcend strict linear boundaries blend together, eventually revealing unexpected forms.

I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certain areas emerging within the painting.

The painting reveals that inexplicable something.

Gaps form between questions and answers, and the unification of the painting's world and reality begins.

The final form that emerges is something unknowable through my will alone.

The painting answers with something that transcends my understanding, emerging from the gap between what I thought I knew and what remains unknown.